

# 70년대 노동소설에 재현된 정형화된 이미지로서의 여성노동자

김경민\*

1. 노동문학의 시대와 여공의 시대, 1970년대
2. 가부장제의 시선에 갇힌 '여성'노동자
3. 여성성이 거세된 무성(無性)적 존재로서의 여성'노동'자
4. '남성/지식인'의 시선으로 정형화된 70년대 노동소설의 한계

## 국문요약

70년대는 한국 문학사에서 민중문학과 노동문학의 시대로 평가받는다. 그러나 노동문제를 소대로 한 70년대 소설에서 여성노동자의 모습은 쉽게 찾아볼 수 없다. 정확히 말하자면, 여성노동자들은 남성인물 혹은 남성서술자의 시선으로 관찰되고 재현될 뿐 여성노동자가 직접 자기 목소리를 내는 경우는 거의 없다. 당시 소설에서 말할 수 없는 여성노동자의 존재는 크게 두 가지 방식으로 재현되는데, 첫 번째 유형은 '노동자'로서의 모습은 생략된 채 단지 '여성'으로만 존재하는 것이다. 남성 인물에 의해 그려지는 여성노동자의 모습은 대부분 퇴폐적이고 문란한 이미지로 왜곡되어 있거나, 혹은 독립적이고 주체적인 사고를 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아버지나 오빠라는 가부장의 보호 아래 있어야 할 연약하고 무지한 존재일 뿐이다. 또 다른 유형은 여성성이 아예 거세된 채 무성(無性)적 존재로서의 '노동자'로만 그려지는 여성노동자들이다. 이 경우

---

\* 대구대학교 조교수

여성노동자들은 '산업전사'나 '산업역군'과 같은 멋진 수식어에 가려져 희생과 인내를 당연하게 받아들여야 했고, 이 과정에서 여성으로서의 욕망이나 감정 등은 쉽게 무시되고 배제되어 버렸다. 또한 남성노동자와 달리 여성노동자로서만 겪을 수밖에 없었던 성적 모욕이나 폭력과 같은 문제 역시 일반화된 노동문제에 가려져 제대로 거론될 수 없었다. 이렇듯 70년대 노동소설에서 여성노동자는 여전히 주변부적 인물이었으며, 이는 남성/지식인들이 (무)의식 중에 가한 또 다른 폭력이라 할 수 있다.

(주제어: 여성노동자, 노동소설, 남성/지식인, 여성성)

## 1. 노동문학의 시대와 여공의 시대, 1970년대

70년대는 한국 문학사에서 가장 풍성한 소설의 시대로 평가받는다. 이러한 평가는 무엇보다 70년대 소설이 반공주의와 권위주의 그리고 성장제일주의로 요약할 수 있는 10월 유신과 경제개발의 시대를 맞아 사회적 소외계층 혹은 변두리 현실에 대한 적극적인 관심을 통해 각성된 시민·민중 주체의 등장을 선도했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sup>1)</sup> 사회적 소외계층, 그 중에서도 노동자 계층의 형상화는 70년대 문학의 중요한 성과 중 하나이다. 조세희의 『난장이가 쏘아 올린 작은 공』, 황석영의 『객지』, 윤홍길의 『아홉 켤레의 구두로 남은 사내』 등 70년대를 대표하는 소설들은 이전 소설에서는 쉽게 찾아볼 수 없었던 노동자 계층의 인물을 주인공으로 내세워 이전까지 자기 목소리를 낼 수 없었던 민중을 본격적

1) 김은하, 「1970년대 소설과 저항 주체의 남성성」, 『페미니즘연구』 제7권 2호, 2007, 250쪽.

으로 문학의 자장 속으로 끌어들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그러나 70년대 소설들이 주목했던 소외된 계층 가운데 유독 그 모습을 찾아보기 어려운 이들이 있다. '여공' 또는 '공순이'라는 이름으로 불리던 여성노동자들이 바로 그들이다. 산업화 시기의 여성상은 대개 현모양처, 매춘여성, 노동자로 구분된다.<sup>2)</sup> 이 중 현모양처는 '새여성', '지식 여성' 등으로 불리는 중산층 여성을 가리키는 개념이자 이들에게 요구되던 덕목을 나타내는 것으로, 70년대 여성 작가들은 주로 이러한 중산층 여성의 삶에 민감하게 반응하며 이들을 소설의 주인공으로 삼았다.<sup>3)</sup> 여성 작가들이 중산층 여성에게 주목한 것과 달리 같은 시기 남성 작가들은 주로 농촌 출신 여성들의 전락과정에 관심을 보였다.<sup>4)</sup> 그러나 말 그대로 남성 작가들이 대상화했던 이들은 이른바 호스티스나 창녀와 같은 매춘여성들 혹은 그와 유사한 직업군의 여성들이 대부분이었다. 결국 산업화시기를 대표하는 여성상에서 여성노동자의 존재만 사라진 셈이다.

그렇다면 실제로 70년대 당시 여성노동자들의 역할과 산업현장에서 그들이 차지하는 비중은 어떠했을까? 한국의 산업화가 노동 집약적이며 수출 주도적인 제조업을 기반으로 진행되다 보니 나이 어린 미혼 여성들이 주로 이러한 분야의 생산직 노동을 담당하였다. 여성 중심의 제조업 분야는 1975년까지 총 수출액의 70%를 차지하였으며, 여기에 고용된 여성노동자는 1970년 36만 명이던 것이 1978년에는 109만 명에 이를 정도로 빠른 증가율을 보이며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다.<sup>5)</sup> 한 마디로 70년대 노동현장에서, 더 나아가 한국 사회에서 여성노동자들은

2) 김복순, 「산업화의 최종심급과 재현의 젠더」, 『한국현대문학연구』 27호, 2009, 411쪽.

3) 이정옥, 「산업자본주의시대, 여성의 삶과 서사」, 『여성문학연구』, 8호, 2002, 233쪽.

4) 위의 글, 233쪽.

5) 김현미, 「한국의 근대성과 여성의 노동권」, 『한국여성학』 제16권 1호, 2000, 41쪽.

간과될 수 없는, 그리고 간과되어서는 안 되는 중요한 존재였다.

그러나 이렇게 중요한 역할을 하고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하고 있던 여성노동자들의 모습을 당시 소설에서는 찾아보기 어렵다. 정확히 말하자면, 이들의 모습이 발견되기는 한다. 다만 남성인물 혹은 남성서술자의 시선으로 관찰되고 그들의 목소리로 이야기되면서 여성노동자는 이른바 ‘말할 수 없는’ 존재, 즉 대상화된 존재로만 나타날 뿐이다. 여성노동자의 시선으로 사건이 전달되고 여성노동자가 직접 자기 목소리를 내는 경우는 거의 없다. 노동현장을 배경으로 노동문제를 주제로 삼고 있는 70년대 소설에서 여성노동자는 남성노동자의 조력자로 기능하거나, 사건을 이끄는 주동적 역할은 하지만 정작 여성노동자들의 목소리는 거세된 채 남성인물이나 남성서술자에 의해 형상화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물론 노동문제를 다루고 있지만 여성노동자가 아예 등장하지조차 않는 소설도 상당수 있다.

이런 현상은 소설에서의 시선과 목소리가 여성노동자들이 아닌, ‘남성/지식인’<sup>6)</sup>이라는 타자에게만 주어졌기에 나타난 것이다. 일반적으로 남녀 간의 성역할 분담과 공/사 이분화는 근대화·산업화에 더욱 공고해졌는데, 이른바 “남편은 일, 아내는 가정”이라는 근대적 성역할 분담이 완성되고 대중화되면서 ‘자본주의적 가부장제’가 정착된 것이다.<sup>7)</sup> 즉 생

6) 여성노동자를 왜곡된 형태로 재현하거나 아예 배제해버린 지배담론의 형성에 일조한 이들은 다양하다. 먼저 같은 작업장에서 직접적인 차별과 폭력을 가한 남성노동자들을 꼽을 수 있으며, 작업장 바깥에서 가부장적 시선으로 여성노동자들을 규정하고 판단하는 남성지식인도 꼽을 수 있다. 뿐만 아니라 같은 여성이며 젠더 문제를 고민하고는 있으나 계급적 차이를 극복하지 못해 여전히 여성노동자를 소외의 대상으로 만들어버린 여성지식인도 포함시킬 수 있다. ‘남성/지식인’은 이들을 모두 아우르는 개념을 표현한 것이다. 적어도 ‘여성노동자’라는 기호에 대립되는 항은 단순하게 남성노동자, 혹은 남성지식인처럼 어느 하나로 단일화할 수 없다. 그러므로 ‘여성’이라는 요소와 ‘노동자’라는 요소 각각의 대립항, 즉 젠더와 계급적 요소를 모두 고려해야 한다는 의미로 ‘남성/지식인’이라 표현한 것이다.

산을 담당하는 공적 공간과 가정이라는 사적 공간이 분리됨으로써 사회와 생산의 주요 담당자는 남성이 되었고 여성은 남성과 가정을 보조하는 의존적이고 보완적인 역할로 제한되었다. 따라서 일터라는 남성의 공간에서 생산노동에 종사하는 여성들에게는 가정에 충실해야 한다는 이데올로기가 강요되었으며, 심지어 이들을 ‘비정상적’으로 보는 시선 또한 적지 않았다. 이러한 자본주의적 가부장제는 한국 사회의 특수한 정치 환경과 전통적 유교문화 등과 결합되면서 더욱 공고해지는 양상을 띤다. 한과 링(Han and Ling)은 박정희 정권의 근대화 프로젝트를 ‘초남성주의적 발전주의 국가(hypermasculine state developmentalism)’의 전형으로 규정하는데, 가부장제 속성을 띠는 자본주의체제가 개발 국가 특유의 권위주의적 정치체제와 유교문화 등과 결합되면서 한국 사회의 근대화·산업화는 남성성/여성성의 이분화가 더 강화된 형태로 발전했다는 것이다.<sup>8)</sup>

이렇게 사회 전반에 만연했던 ‘남성/지식인’의 시선은 문학으로까지 이어져 노동소설 속에서 여성노동자가 특정 이미지로만 정형화되고 소외되는 결과를 낳았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70년대 노동소설 가운데 여성노동자가 등장하는 소설을 대상으로 여성노동자가 재현되는 구체적 양상을 살펴보고, 이를 통해 70년대 노동소설의 성격과 한계에 대해 논

7) 우에노 치즈코, 이승희 옮김, 『가부장제와 자본주의』, 녹두, 1994, 201쪽.

8) 초남성주의적 국가는 식민지 지배를 받은 아시아의 국가들이 근대화 과정을 추구할 때, 서구의 제국주의적이며 강력한 남성성을 모방하면서도, 자국의 내적 단결을 유지하기 위해 반동적이면서 강력한 남성성을 발전의 이데올로기로 삼는 것을 의미한다. (...) 한국의 권위주의적 발전체제가 성공할 수 있었던 것은, 한국 사회의 유교적 부형지배, 즉 유교적 남성다움인 도덕성, 엄격함, 체면과 가정의 행복에 대한 책임 등과 같은 전통적인 관념들을 근대화 프로젝트로 통합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Han, Jongwoo and Ling, L.H.M., “Authoritarianism in the Hypermasculine State: Hybridity, Patriarchy, and Capitalism in Korea,” *International Studies Quarterly*, 42; 김현미, 앞의 글, 41-42쪽 재인용)

의해보고자 한다.

## 2. 기부장제의 시선에 갇힌 ‘여성’노동자

이 장에서 살펴볼 인물들은 분명 ‘여공’, ‘여차장’ 등으로 불리고는 있으나 이들이 ‘노동’하는 모습은 텍스트 전면에서 생략된 채 단지 ‘여성’으로만 그려지는 경우이다. 남성노동자들의 파업과 노사갈등을 다룬 『객지』에 이어 발표된 황석영의 또 다른 단편 『돼지꿈』은 다양한 도시빈민의 삶을 그린 작품이다. 여러 직업군의 빈민들 가운데 여성노동자들의 모습도 포착되는데, 이들은 서술과정에서 ‘여공’으로 지칭되기만 할 뿐 정작 이들이 공장에서 ‘노동’을 하는 장면은 텍스트 상에 나타나지 않는다. 단지 노동하는 상황만 생략된 것이 아니라 포장마차 주인인 덕배의 시선으로 그려지는 이들의 모습은 사실상 ‘노동’과는 거리가 멀어 보인다.

“앞으로 몇 년만 참으면, 기술이라두 배우잖어?”

“기술 좋아하네. 그런 게 기술이면 밥짓는 것두 기술이구 연애하는 것두 기술이겠단, 예.”

“그러엄, 기술이지…… 잘만 물어봐.”

“흠에나 나갈까, 아니면 놈씨나 하나 잡을까.”

“공돌이?”

“개들은 안돼. 십년 지나야…… 겨우 반장쯤인걸.”

그때, 도구를 챙겨 메고 밖으로 나가던 노인이 투덜거렸다.

“온…… 천하에 못돼먹은 년들 같으니. 내외할 줄두 모르구. 버젓이 밤중에 쓰다니면서 상소리나 해? 그저 내 딸년 같으면 다리몽갱이를……”

(『돼지꿈』, 250-251쪽)

여공들의 관심은 온통 자신의 육체를 이용해 쉽게 돈을 벌 수 있는 방법에 있다. 이런 여공들은 전통적 가부장제의 시선에서는 당연히 “천하에 못돼먹은 년”일 수밖에 없다. 한편에서는 이렇게 “천하에 못돼먹은 년”으로 손가락질을 받는가 하면, 다른 한편에서는 “말만 잘하든 주는 거 아니냐”(『돼지꿈』, 251쪽)는 성적 농담의 대상이 되기도 한다.

문제는 비단 여공들을 향한 남성들(못마땅해서 비판을 하는 노인이나 성적 농담을 건네는 젊은 남성이나)의 시선만이 아니다. 이 텍스트에서 문제적인 부분은 남성들의 멸시와 조롱의 시선을 받고도 불편하거나 언짢은 기색을 보이지 않는 여공들의 태도에 있다. 이들은 오히려 근호가 던진 성적 농담에 “애인 하나 소개해줘요”라며 되받아치기까지 한다. 포장마차를 찾은 여공들만 이런 것은 아니다.

“너 지지난달에 제품부에 들어온 명자 알지? 개는 요새 생활비가 딸려서 여관에 출장나간대. 고계 공장 와서는 혼자 양전을 다 떼다구. 누가 봤다면서 슬쩍 찢렸더니, 화장실루 데려가서 울면서 사정을 하더라, 애.” (...)

“우리 같은 건 본사 직원 근처엔 얼씬두 못해. 검사과에 있는 미쓰박이라고 훌쭉한 애 있잖아. 와다나베인가, 와리바신가 하는 끈대하구 살림 차렸대.”

(『돼지꿈』, 252-253쪽)

여공들의 대화를 통해 드러나는 다른 여공들의 모습도 크게 다르지 않다. 모두 가난을 이유로 자신의 육체를 기꺼이 성적 대상으로 내놓기를 주저하지 않는다.

포장마차에 들렀던 여공들은 주인인 덕배가 경관에게 불려나가 돈을 상납하는 사이를 틈타 우동값을 내지 않고 도망을 친다. 도망간 여공들을 뒤쫓던 덕배는 결국 여공들의 자취방까지 가게 된다.

얇전이가 곱게 눈을 흘겼다. 여자는 편하게 다리를 주욱 뻗고는 깡충한 치마를 사타구니 쪽에 몰아다 들뜨지 않도록 주먹으로 내리누르고 있었다. 덕배는 허영 게 드러난 허벅지 쪽으로 눈이 가지 않도록 신경을 써야만 했다. (...)

“처녀 방에 웬놈이 사내 냄새가 이렇게 심할까, 원.”

얇전이가 고개를 들어 벽에 걸린 남자 옷들을 힐끗 보고 나서 말했다.

“친구들이랑 넷이서 같이 합숙해요.” (...)

“서루 바꿔 자기두 하는 모양인가. 남자 여자 남자 여자 놀다보면.”

“이 아저씨 인제 보니 우등값 받으러 온 게 아니구……” (...)

얇전이가 한쪽 다리를 던지시 올리고 머리를 가웃하게 엮었다.

덕배는 깨어가던 술이 한꺼번에 올라오는 느낌이었다.

“좌우간 오늘 장사 망했다. 젠장할!”

덕배는 발끝으로 거칠게 미닫이를 닫아버렸다. (『돼지꿈』, 257-258쪽)

덕배의 눈에 포착된 여공은 자취방에서 남자와 함께 동거를 하고 있었으며, 낯선 남자 앞에서도 몸가짐을 조심하기는커녕 스스럼없이 자신의 육체를 드러내는 여성이다. 이런 여공을 향해 덕배는 더 노골적으로 수작을 부리고, 결국 여성의 육체를 범하고 만다. 물론 이 과정에서도 얇전이라 불리는 여공은 덕배의 수작이나 희롱에 거부하거나 저항하지 않고,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덕배에게 성적 유혹을 하는 모습으로 그려진다. 이처럼 『돼지꿈』에 나오는 여공들은 모두 성적으로 문란하고 수치심도 없으며, 돈벌이를 위해서라면 기꺼이 자신의 육체를 내놓기까지 하는 모습으로 재현된다.

여공들이 이렇게 타락하고 문란한 이미지로 형상화되는 것은 그들을 ‘보는’ 시선이 남성 인물에게 있기 때문이다. 소설은 시선의 체계로, 동일한 대상이라도 ‘누가’ 보느냐에 따라 전혀 다른 의미로 해석될 수 있다. 『돼지꿈』에서는 덕배라는 남성 인물이 초점화자로 설정되어 있어 그의 시선으로 그려지는 여공들의 모습은 왜곡될 수밖에 없는 것이다. 남성들의 성적 농담이나 조롱도 여공들이 먼저 그럴 만한 빌미를 제공



했기 때문이며, 따라서 남성들은 그에 대해 아무런 책임이나 문제의식을 느끼지 않아도 된다는 식의 발언은 『돼지꿈』 서술자와 초점화자의 젠더를 분명히 하고 있다. 그리고 이렇게 젠더화된 시선은 여성노동자를 남성들의 폭력적 시선과 행동에 대해 문제의식조차 갖지 못하는 무비판적이며 비주체적 대상으로 규정하고 재현해버림으로써, 자연스럽게 주체로서의 여성노동자라는 존재를 텍스트에서 배제해버린다.

이청준의 『별을 기르는 아이』에서는 일명 ‘차순이’라 불리는 버스 여차장들의 모습이 그려지는데, 이 또한 남성 인물의 시선에 포착된 것이다. 중국집 배달원인 ‘나’는 아직 어린 소년이다. 그러나 여성들에 대한 묘사만큼은 나이가 무색할 정도로 성인 남성의 시선과 그대로 일치한다. 배달을 위해 들르게 된 여차장들의 합숙소에서 ‘나’의 눈에 비춰진 여차장들의 모습은 오직 ‘육체’로서의 여성일 뿐이다.

합숙소 배달을 나갔다가 방문 근처를 가보면 계집애들은 대개 옷을 벗은 채로 지내는 일이 많았다. 어떤 애들은 젓가리개와 팬티만 꿰차고 말 새끼처럼 실내를 아무렇게나 뛰어다니고, 어떤 애들은 아예 온몸을 담요 자락에 둘둘 말아 감고서 시들시들 방바닥을 뒹굴고 있기도 했다. 가슴에다 젓가리개만 걸고 있는 녀들은 버스 회사 가운을 입고 길거리를 짓까불고 다닐 때와는 달리 그 가슴들이 너무도 단단하고 어마어마해 보여서 갑자기 숨길이 다 막혀오는 것 같을 때가 있었다.

얇고 좁은 천 조각 사이로 허연 살덩이가 꾸역꾸역 꿰어져 나오고 있는 엉덩이 살을 코앞에 보게 될 때도 나의 느낌은 대략 늘 그런 식이었다. 사실은 그게 내겐 무엇보다도 화가 나는 일이었지만 그런 차순이란 녀들은 그런 모습을 하고서도 내 앞에선 전혀 부끄러워할 줄을 모르는 것이었다.

(『별을 기르는 아이』, 252쪽)

여차장들은 비록 어린 소년이긴 하나 남자 앞에서 나체에 가까운 육체를 드러내는 것에 대해 조금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그녀들의 모습

은 부끄러움과 수치심을 느끼는 인간이기 보다는 아무렇게나 뛰어다니는 ‘말 새끼’에 가깝다. 오로지 성적 대상으로서의 육체만이 부각되는 ‘나의 관찰에서 노동하는 여차장들의 모습이 들어설 자리는 없다. ‘나의 이런 시선은 버스 여차장뿐만 아니라 다른 직업군의 여성들에게까지 이어진다.

가능하면 그녀는 나보다도 나이가 두 살쯤만 더 먹은 여자였으면 좋으련만. 그리고 아직은 누구와도 무슨 연애질 같은 걸 해보지 않은 알짜배기 처녀 회사원쯤 되었으면 좋으련만. 아니 그녀가 아직 사내 냄새를 좋아할 줄 모르는 숫처녀이기만 하다면 회사원이 못 되더라도 상관없겠지. 그야 물론 점심때마다 장괴집만 찾아들어 곱배기 자장면을 시켜먹고 나가는 화장품 회사 외무 사원이나 공업 단지 수출 공장의 여자 공원, 거기다 좀더 욕심을 부리자면 요즘에 그 동네마다 들어서기 시작한 슈퍼마켓 판매원이나 전화국 교환양 아가씨쯤만 되어준다면 더 바랄 일이 없을 터이지만, 그게 아니라면 그저 시내버스 차장 아가씨나 미용실 심부름꾼 정도라도 나로서는 섭섭해 할 바가 아니었다. (『별을 기르는 아이』, 245쪽)

진용이가 찾는 누나의 모습을 떠올리는 ‘나의 상상 속에는 70년대 당시 여성들이 종사했던 다양한 직업들이 등장하는데, ‘나’에게 있어 이들은 모두 여성‘노동’자가 아니라 단지 ‘여성’노동자일 뿐이다. 물론 버스 차장보다는 공장의 여공이, 또 그 보다는 전화 교환원이나 회사원을 더 선호한다는 점에서 노동의 성격과 유형에 따른 차별적 인식을 보이기는 하나, 이 모든 것에 우선하는 조건은 “아직 사내 냄새를 좋아할 줄 모르는 숫처녀”여야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버스 차장-여공-전화 교환원-회사원으로 이어지는 직업 구분 또한 못남성들의 시선이나 접촉에서 비교적 안전한, 따라서 ‘알짜배기 처녀’일 가능성이 크며 전통적 의미의 여성성을 더 많이 지니고 있을 것이라는 차별적 인식에서 비롯된 것임을 알 수 있다.」 결국 ‘나’ 역시 경제적 자립성과 능력을 갖춘 ‘노동’하는 여성

이 아닌, 성적 대상으로서의 순결하고 조신한 ‘여성’을 선호하고 있으며, 따라서 이런 ‘나’의 눈에 비춰진 여성노동자들은 모두 ‘노동’의 기호가 생략된 채 단지 ‘여성’으로만 그려질 수밖에 없는 것이다.

여성노동자를 성적 대상으로서가 아닌 또 다른 의미의 ‘여성’노동자로 보는 경우도 있다. 이 때의 여성노동자의 이름은 누이, 아내 혹은 (미래의) 어머니이다. 70년대를 대표하는 소설인 조세희의 『난장이가 쏘아 올린 작은 공』(이하 『난쏘공』)은 노동문학을 상징하는 작품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난쏘공』을 살펴보는 것은 (….) 70-80년대 노동문학이 도달한 자리를 점검하는 작업<sup>10)</sup>이라는 평가에 이견이 없을 정도로 노동문학을 다루는데 있어 『난쏘공』의 위상은 절대적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 연작에서도 여성노동자의 목소리는 들을 수 없다. 영희를 비롯한 여성노동자의 생각과 행동은 모두 영수의 시선과 목소리를 통해 독자에게 전해지기 때문이다.

옥상에서는 영희가 일하는 방직 공장도 보였다. (….) 영희에게 주어지는 점심 시간은 십오 분밖에 안 되었다. (….) 내가 한 점心和 하나도 다를 것이 없는 점심을 영희도 했다. 영희는 시간에 쫓겨 허겁지겁 먹었다. 허겁지겁 먹고 다시 현장

9) “글쎄……그 아이들이 여자처럼 보이진 않았어. 개중에는 얼굴 반반한 애들도 좀 있긴 했지만, 아휴……개들이 얼마나 거친 애들이었는데, 막 되먹었다고 해야 하나, ……좀 그런 애들이었어. 일하는 거 보면 남자가 따로 없어. 또 목소리는 얼마나 큰지.”, “같이 일하던 반장 중에 성격이 아주 와일드한 애가 하나 있었는데, 이견 이름만 여자지 완전 남자야……. 같이 일하는 애들을 완전히 휘어잡고 통솔하는데…… 진짜 여자인지 누가 한번 확인해봐야 한다고. ……서로 니가 하나고……뭐 여자가 좀 야들야들한 게 있어야지 여자지, 아무나 다 여잔가…….”(전혜진, 『미혼 공장 여성노동자의 경험을 통해 본 근대적 여성성 형성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3, 35쪽) 이런 인식들이 당시 남성들이 여성노동자에 대해 갖고 있던 일반적인 생각이었다.

10) 류보선, 『사랑의 정치학: 『난장이가 쏘아 올린 작은 공』을 통해서 본 조세희론』, 민족문학사연구소 현대문학분과, 『1970년대 문학연구』, 소명, 2000, 386쪽.

으로 달려 들어가 직기 사이를 뛰듯 걸었다. 영희는 한 시간에 칠천이백 걸음을 걸었다. (...) 직기의 집단 가동으로 생기는 소음이 땀에 절어 있는 작은 영희를 몰아붙였다. 영희는 잠을 자다 일어나 울었다. 어머니가 모르게 영희는 울었다. 그러나 영희는 아직도 여러 저를 속박하고 있는 굴레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못했다. (『은강 노동 가족의 생계비』, 『난쏘공』, 203쪽)

영희로 대표되는 여성노동자의 고통과 열악한 노동환경은 영수(‘나’)의 시선으로 그려진다. 영희가 느끼는 고통과 어려움은 “한 시간에 칠천이백 걸음”이라는 계량화된 수치로만 나타날 뿐이다. 영수에게 영희는 아직 어리고 무지한 존재일 뿐, 독립적이고 주체적인 사고와 의식을 가진 여성노동자가 될 수는 없다. 그래서 영수의 시선에 비춰진 영희는 단지 “아직도 여러 저를 속박하고 있는 굴레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못”하는 존재에 불과하다. 다시 말해 영희는 여전히 아버지 혹은 오빠라는 가부장의 보호 아래 있어야 할 연약하고 무지한 존재이기 때문에, 비록 영희가 아무리 공장에서 일을 하고 있다고는 하나 그녀에게 ‘노동자’라는 이름은 허락되지 않는 것이다.

“두 아들이 위험한 일에 말려들지나 않을까 항상 걱정”(『은강 노동 가족의 생계비』, 204쪽)하는 어머니조차 “지부장이 실종됐다고 다른 조합원과 몰려다”니는 영희에 대해서는 걱정하지는 않는다. 심지어 “영희의 의식이 눈에 띄게 달라지고, 사용자들을 비판하는 격렬한 문구의 유인물들을 싸들고 다녀도”(『은강 노동 가족의 생계비』, 205쪽) 영희에 대한 걱정은 하지 않는다. 오히려 영희에게 “여자가 가져야 할 가족과 가정에 대한 전통적 의무가 어떤 것인지 이야기”(『잘못은 신에게도 있다』, 233쪽)를 할 뿐이다. 어머니에게도 영희는 자신의 신념과 의지에 따라 사고하고 독립적 경제활동을 해나가는 주체로서의 ‘노동자’가 아니라 누군가의 딸, 누군가의 여동생 혹은 누군가의 아내라는 이름으로 살아야 하는

‘여자’인 것이다.<sup>11)</sup>

‘여공은 가족을 구성해야 하며 모성의 모체이다. 따라서 공장에서 하는 노동은 임시적이다. 하지만 사회적 도덕률에서 벗어난 여성노동자는 어머니의 자격조차 없다. 결혼이 최고의 덕목이다’라는 것이 당시 국가와 사회가 여성노동자들에게 요구하는 덕목이기 때문이다.<sup>12)</sup> 한편으로 이런 시각은 여성노동자의 동거와 성적 문란을 기정사실화 하고 있다는 점에서도 문제적이다. 앞서 살펴본 『돼지꿈』에서의 여공들의 모습이 바로 이런 편협한 시선의 결과인 것이다. 여성노동자들의 삶을 이해하고 해석하는데 있어 정작 주체가 되는 이들의 욕망이나 감정, 생각은 전혀 고려되지 않고 ‘남성/지식인’이라는 외부의 시선으로만 이루어지다 보니 자연스럽게 이들의 삶은 ‘문란’, ‘타락’과 같은 부정적 이미지로만 규정되는 것이다. 그리고 가부장제 사회에서 언제나 그러했듯이 ‘남성/지식인’은 문란하고 타락한 여성노동자들을 교화하고 계도해야 할 책임 있는 역할, 즉 가부장 노릇을 자처하고 나선다.

문제는 이 과정에서 당대의 문학까지 ‘남성/지식인’과 같은 자세를 취

11) 김복순 역시 『난쏘공』 “연작에서 여성은 사라지고 없다”는 말로 이 소설의 한계를 지적한 바 있다. “여성 인물이 ‘보일’ 때는 매개자로 등장할 때뿐이며, 대부분 현실변혁을 원치 않거나 반대한다. (...) 『잘못은 신에게도 있다』에서 영희는 열악한 노동환경에 시달리면서도 노동현실을 이해하지 못하는 인식부족, 자각부족의 노동자로 형상화되어 있다. (...) 여성들은 변모하지 않고 평면적인데 반해, 남성들은 모두 나름대로 철학을 갖고 있거나 긍정적으로 변모한다. (...) 하지만 여성들은 거개가 실천적 인물로 형상화 되지 못하고, 현장에 있으되 보이지 않거나 서사의 표면에서 사라지고 없다. 계층 간의 대립과 갈등에서 여성은 대립의 주체가 되지 못하고 타자화되어 있다. 계급모순을 은폐 또는 삭제하는 역할로 배치되어, 서사의 표면에서 사라진다. 은강그룹도, 자본주의의 모순도 여성 인물을 통해 거론되지 못하며, 여성들은 시선을 소유하지도, 실천의 영역으로 자리매김 되지도 못하였다. (...) 이와 같은 여성의 배치는 여성을 역사 구성의 ‘주체’로 인식하지 ‘않는’ 시선이다.”(김복순, 앞의 글, 426-429쪽)

12) 김원, 『여공 1970 그녀들의 反 역사』, 이매진, 2006, 549쪽.

하고 있다는 것이다. 계급적 평등과 인권을 운운하며 진보적인 목소리를 낸다고 자부하는 남성 작가들은 물론이고, 여성 해방을 외치던 여성 작가들까지 여성노동자에 대해서만큼은 엄격하게 비판적 잣대를 들이댄다. 앞서 살펴본 소설들은 모두 남성 작가들의 것으로, 이들이 전통적 가부장제의 시선으로 '여성'노동자를 대상화한 것도 분명 문제적이다. 그러나 가부장제의 모순과 차별을 비판하며 여성 해방을 요구하고 나선 여성 작가들조차 여성노동자를 텍스트에서 배제해버린 점 또한 간과해서는 안 될 지점이다.<sup>13)</sup> 여성노동자들의 삶을 부정(不淨)과 미성숙의 상태로 규정해버린 채 자신들은 이해할 수 없다는 듯 혹은 이해하고 싶지 않은 듯 구별짓기를 해버린 여성작가들의 태도 역시 '남성/지식인'의 폭력적 시선과 결코 다르지 않기 때문이다.

앞서 언급했듯이, 당시 이런 차별적 태도가 만연했던 것은 전통적 가부장제의 관습뿐 아니라 한국 사회에 자본주의적 산업화가 정착되는 과정에서 그 원인을 찾을 수 있다. 1960-70년대에 진행된 한국의 산업화는 일반적으로 성별 이데올로기에 근거하여 이루어졌으며, 특히 여성을 타자적으로 편입시키는 방식으로 전개되었다.<sup>14)</sup> 남성노동자와 여성노동자 간의 직급이나 임금 차별과 같이 표면적으로 드러나는 문제뿐 아니라, 성별에 따른 공/사 구분과 이분화의 문제 등은 산업화 과정에서 일반적으로 발생하는 차별의 대표적인 문제이나, 특히 한국 사회에서는 더욱 두드러지는 양상을 보였다. 이런 사회적 배경으로 인해, 자연스럽게 여성에게 노동은 한시적·선택적인 것이며, 따라서 결혼을 한 뒤에는 사회적 생산노동에 종사하지 않는 것을 관행으로 여기는 인식이 사

13) 이 시기 여성작가들의 작품 경향과 특징에 대해서는 이정옥의 논문 「산업자본주의시대, 여성의 삶과 서사」에서 자세히 다룬 바 있다.

14) 김복순, 앞의 글, 412쪽.

회 전반에 만연할 수밖에 없었다. ‘노동하지 않는’ 여성노동자의 등장은 이러한 사회적 인식과 결코 무관하지 않다.

### 3. 여성성이 거세된 무성(無性)적 존재로서의 여성‘노동’자

여성노동자를 엄연한 경제 활동의 주체로 보기 보다는 가부장제의 시선에 따라 성적 대상 혹은 순결이 강요되는 보호 대상으로만 형상화한 것이 2장에서 살펴본 여성노동자의 이미지였다면, 동시대의 다른 소설들에서는 전혀 다른 여성노동자의 이미지를 발견할 수 있다. 이 장에서 살펴볼 여성노동자들은 ‘여성’이라는 기호의 의미가 무색한, 한 마디로 여성성이 거세된 무성(無性)적 존재에 가깝다. 이들은 텍스트에서 ‘여성’ 혹은 ‘여공’, ‘공순이’와 같은 호칭만 지운다면 남성노동자와 전혀 다를 바 없는 모습으로 그려진다.

도시빈민들의 열악한 노동환경과 가난한 삶을 소재로 한 홍성원의 『흔들리는 땅』에서 단연 관심을 끄는 부분은 회사의 인권유린에 맞서는 버스 여차장들의 파업과 저항이다.

감찰들이 들이닥쳤어요. 전에두 가끔 그런 일이 있었지만 그날은 웬일인지 감찰들 눈이 이상했어요. (...) 뭔가 불안하고 떨리긴 했지만 우린 태연하게 육 호실루 들어갔어요. 헌데 들어가서 감찰들을 둘러보니 그중에 뜻밖에두 조과장들 감찰인 박우필이 끼어 있더군요. 우리들 몸 뒤집에 사내 감찰이 끼어들기는 그때가 처음이에요. 우리들 몸 뒤집은 그때까지 줄곧 오계순이 아니면 천수자가 맡아서 했거든요. 좌우간 우리를 일자루 세워놓구 천수자가 대뜸 옷을 벗으라고 호령을 하더군요. 우린 처음엔 옷 벗으라는 말이 무슨 소린지 몰랐어요. 그때까진 우린 몸 뒤집을 받아두, 옷 위를 더듬기나 했지만 벗어본 일은 없었어요. 더구나 그때는 바로 우리 앞에 남자 감찰까지 앉아 있었구, 내복 한 장들만 걸친 처치여서

그것을 벗으면 우린 그대로 알몸이었어요. 벗으라는 소리가 무슨 소리가 싶어, 우리는 눈이 뚱그래서 그냥 꺾꽂이 서 있기만 했던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등신처럼 서 있자니 별안간 오계순이가 내 뺨따귀를 번개처럼 후려치더군요. (...) 안 벗는 녀은 죄가 있는 년이니까, 기어쿠 옷을 벗겨서 진짜 도둑년을 찾아내구야 말겠다는 거예요. 분하구 원통한 건 한이 없지만 이렇게 되니 안 벗을 도리가 없더군요. 차장 년 된 게 잘못이다, 생각하구 우린 기어쿠 꾸물꾸물 옷들을 벗기 시작했어요. (『흔들리는 땅』, 120-121쪽)

남성 감찰 앞에서의 알몸수색이라는, 여성으로서는 수치스러운 반인권적 행위에 맞서 남숙을 비롯한 여차장들은 파업을 시작한다.<sup>15)</sup> 이들의 파업은 단지 우발적이고 감정적인 것이 아니라 조직을 결성하고 회사를 상대로 정식으로 요구사항까지 제시하면서 협상을 시도하는 등 제대로 된 노동운동의 형태를 띠고 있다. 그러나 회사와의 협상은 이루어지지 않고 오히려 여차장들은 회사 측에서 고용한 남자 행상과 구두담이들에 의해 합숙소에 고립되는 상황에 처하게 된다. 궁지에 몰린 상황에서 남숙은 결국 공장 지붕에 올라가는 강경책을 쓴다. 그러나 회사 측은 뛰어내리겠다는 남숙의 위협에도 물러서지 않고 남은 여공들을 끌어내어 데모를 끝내고자 한다. 결국 남숙은 지붕에서 뛰어내리게 되고 다리 하나가 부러지는 부상을 입는 것으로 이들의 파업은 끝이 난다.

이렇게 길고 험난한 파업의 과정이 그려지는 동안 정작 그 파업을 주도했던 남숙의 목소리는 어디서도 찾아볼 수 없다. 텍스트에서 남숙은 병원에서 퇴원한 이후 회사를 떠났으며, 아마 고향인 전라도로 내려갔을 것이라는 추측만 있을 뿐 아예 부재한 대상으로 설정되어 있다. 그리고 파업의 과정은 남숙의 친구인 주옥을 통해서만 기억되고 전달될 뿐이다. 따라서 파업의 전 과정에 대한 이야기는 물론이고 가장 극적인 그

15) 김원은 이러한 '몸 수색'이야말로 여성노동자들의 여성성을 거세하는 관행적 실천의 하나라고 비판한다. (김원, 앞의 책, 544쪽)



상황에 대해서도 남숙 본인의 생각과 감정이 아니라 제3자의 눈에 비춰진 모습으로만 재현된다. 당연히 그 재현된 이미지의 남숙과 실제 남숙은 다를 수밖에 없다.

하나씩 들썩 끌려가면서 우린 영영 목을 놓구 울기만 했어요. 이걸루 이젠 다 끝났다 생각하구 분하구 원통해서 영영 울기만 했던 거예요. 허지만 우린 끌려가면서두 남숙이 쪽을 흘끔흘끔 쳐다봤어요. 우린 웬지 남숙이가 정말루 그 위에서 뛰어내리길 바랐어요. 뛰어내림 죽는다구 생각하면서두, 개만은 우리처럼 놈들한테 행복하지 않기를 바랐어요. (『흔들리는 땅』, 128쪽)

다른 여공들은 끌려가면서도 남숙만은 자신들처럼 회사의 억압에 굴복하지 않고 끝까지 저항하기를 바란다. 지붕 위에서 뛰어내리면 죽게 될 것을 알면서도 남숙이 뛰어내리길, 그래서 자신들은 이루지 못한 저항을 끝까지 실현하는 순교자가 되길 바라는 것이다. 이렇듯 심지어 같이 파업을 했던 동료들마저도 남숙에게는 순교자적 희생이라는 하나의 이미지만을 요구하고, 또 그렇게 기억하고 재현한다. 물론 그렇게 재현된 남숙의 이미지는 숭고하고 아름다운 모습이다. 당시 그 현장에 있었던 재득은 남숙을 떠올리며 “개가 지붕에서 뛰어내리는 순간, 난 숨 막히도록 개가 예쁘구 거룩하게 보였”(『흔들리는 땅』, 139쪽)다고까지 말한다.

하지만 이렇게 아름답고 용기 있는 순교자의 이미지는 어디까지나 다른 사람에 의해 재현된 이미지에 불과하다. 중요한 것은 지붕 위에 혼자 올랐을 때, 그리고 뛰어내리겠다는 결심을 하고 발을 내딛는 순간에 남숙이 가졌던 생각과 감정이지만, 작가는 남숙에게 말할 기회를 주지 않은 채 마지막까지 남숙을 주체가 아닌 객체로만 그리고 있다. 뿐만 아니라 알몸으로 몸수색을 당하는 상황에서도 남숙의 이야기는 들을 수가

없다. 물론 같이 몸수색을 당한 주옥이 “분하구 원통”하다고 당시의 감정을 전하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차장 년 된 게 잘못이다”는 신세한탄으로 문제적 상황에 쉽게 굴복한 주옥의 생각일 뿐이다. 끝까지 옷을 벗지 않고 저항하며 “난 못 벗는다, 인권유린이다”(『흔들리는 땅』, 123쪽)고 외쳤던 남숙이 가졌던 생각과 감정이 주옥의 것과 동일할 수는 없다.

이렇게 여공을 아름답고 숭고한 존재로 이미지화하는 작업이 소설 텍스트에서만 이루어졌던 것은 아니다. 산업화 시기 국가를 위한 희생과 인내를 강조하기 위해 여성노동자들은 종종 비성화(非性化)된 “산업전사”나 “산업역군”으로 묘사되고 여성노동자들의 특수한 조건과 이해는 “무성적(無性的)”인 차원으로 격하되거나, 아예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취급되었다.<sup>16)</sup> 반인권적인 노동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극단적 방법으로 자신을 희생한 여성노동자를 단지 “예쁘구 거룩하게 보였”다는 미화된 이미지만으로 재현하는 것은, ‘산업전사’나 ‘산업역군’과 같은 화려한 수사로 여성노동자들의 희생과 인내를 당연시하며 이들의 존재가치를 왜곡했던 지배담론의 이데올로기와 다를 바가 없다.

여성노동자에게 가해지는 이러한 폭력적 시선은 『난쏘공』에서도 발견할 수 있다. 앞서 2장에서 살펴본 『난쏘공』의 영희가 ‘여성’노동자로만 재현되었던 것과 달리 『난쏘공』에 등장하는 또 다른 여성노동자인 영이는 여성성이 거의 드러나지 않는 ‘노동자’의 이미지로만 그려진다.

나는 앞으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의 어려움에 대해 지부장에게 설명했다. 똑똑하고 예쁜 아이였다. 내가 하는 이야기를 영이는 빨리 알아들었다. 노동법에 대해서는 나보다 더 많이 알고 있었다. 아직 나이가 어려 자기 정리를 못 할 뿐이었다.

16) 김현미, 『근대의 기획, 젠더화된 노동 개념』, 김영옥 엮음, 『“근대”, 여성이 가지 않은 길』, 또 하나의 문화, 2001, 51쪽.

그 혼란에서 그 아이를 끌어내면 되었다.

(『잘못은 신에게도 있다』, 『난쏘공』, 222쪽)

처음 영수를 통해 그려진 영이의 이미지 또한 앞서 살펴본 영희와 마찬가지로 ‘여성’노동자에 가깝다. “아직 나이가 어려 자기 정리를 못”하는 존재이며, 따라서 누군가의 도움과 지도가 필요한 존재이다. 그러나 이후 노사협회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면서부터 영이는 단지 노조 지부장, 즉 노동자로만 그려진다. 노사협회를 위해 영이는 “가슴에 진한 보라색 꽃 한 송이”를 단 “흰 원피스에 흰 구두를 신”(『잘못은 신에게도 있다』, 223쪽)은 모습으로 등장한다. 노사협회를 하는 노동자의 복장으로는 어울리지 않는 이 복장의 의미는 사용자와 노동자 간의 대화를 통해 드러난다.

**사용자 2** “지부장은 무슨 돈으로 그렇게 예쁘게 차려입을 수 있었소? 봉투가 그렇게 얇다면 무슨 돈으로 먹고, 무슨 돈으로 옷과 구두를 샀어요?”

**노동자 1** “저는 혼자 살아요. 부모님도 안 계시고, 학비를 대줘야 할 동생들도 없습니다. 저는 많이 먹지도 못하고, 맛있는 것을 골라 군것질도 하지 않습니다. 일하지 않는 시간엔 피로해서 잠만 잤습니다. 옷도 깨끗이, 오래 입으려고 늘 신경을 썼습니다. 이 옷과 구두는 저축한 돈으로 산 것입니다. 지금은 종업원을 대표하는 입장이라 깨끗이 입고 나오고 싶었습니다. 이렇게 차려입기 위해 저는 삼급 노동자의 한 달 임금보다 더 많은 돈을 썼습니다.” (『잘못은 신에게도 있다』, 228쪽)

영이(노동자 1)는 종업원을 대표하는 입장인 만큼 깨끗이 입고 싶었으며, 그래서 삼급 노동자의 한 달 임금보다 더 많은 돈을 썼노라고 자신의 복장에 대해 설명한다. 영이의 이 말에서 ‘여성’으로서의 영이의 모습은 찾아볼 수 없다. 영이는 여느 다른 여성들처럼 예쁘게 보이고 싶은

개인적 욕망에서가 아니라 오직 노동자의 대표라는 공적 역할을 위해 차려 입은 것이다.

영이가 여성노동자가 아닌 단지 무성(無性)의 노동자로만 취급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또 다른 단서는 노사 간의 협의 과정을 전하는 서술 방식에서 찾을 수 있다. 노사 간의 협의 과정은 텍스트의 다른 부분들과 달리 마치 희곡의 한 부분처럼 사용자와 노동자 간의 직접 대화의 형식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런데 이 장면에서 모든 인물들은 ‘사용자1’, ‘사용자2’, ‘노동자1’, ‘노동자2’와 같은 이름으로만 지칭된다. 이렇게 표시되면 당연히 노동자의 젠더적 차이는 무의미해진다. 위의 인용문을 보면 대화의 내용 상 ‘노동자 1’이 영이임을 쉽게 알 수 있다. 그러나 영이, 즉 ‘노동자 1’로 지칭되는 인물의 다른 발언들을 보면 여성노동자로서의 면모는 전혀 찾아볼 수 없다.

**노동자 1** “저희들은 돌아가는 기계를 더욱 빨리 돌아가게 하기 위해 애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노동자들은 인간다운 생활을 못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공장 안에서 하는 일과 생계비와 임금을 생각했습니다. 부공장장님의 말씀과는 달리 저희는 미개 사회에 사는 미개인이라는 결론을 얻었습니다. 기계를 좀더 빨리 돌리기 위해서라도 저희 노동자들이 인간다운 생활을 해야 한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잘못은 신에게도 있다』, 227쪽)

**노동자 1** “임금 이십오 퍼센트 인상, 상여금 이백 퍼센트 지급, 부당 해고자의 무조건 복직 - 이상입니다.” (『잘못은 신에게도 있다』, 228쪽)

‘노동자 1’이 한 이런 발언들은 모두 노동자 일반의 문제와 그에 대한 요구사항일 뿐, 여성노동자로서 겪는 특수한 문제나 경험은 아니다. 다시 말해, 영이는 분명 여성노동자이지만 주변에서 요구하는, 그리고 영

이 스스로 인식하는 정체성은 여성노동자가 아닌, 성적 특수성과 차이가 존재하지 않는 무성(無性)의 '노동자'인 것이다. 앞서 『흔들리는 땅』에서 살펴본 것처럼, 그리고 같은 시기를 대상으로 한 여성노동자들의 수기에서 쉽게 볼 수 있는 성적 모욕이나 희롱 등 여성이기에 겪을 수밖에 없는 문제가 분명 있음에도 불구하고, 『난쏘공』에서는 이런 점이 간과되고 있는 것이다. 아무리 예쁜 옷과 구두로 치장을 하고 있더라도 여성으로서의 영이 개인의 욕망이나 감정이 충분히 이야기되지 않는 한 영이는 비성(非性) 혹은 무성(無性)의 존재일 뿐이다.

더 문제적인 것은 이런 상황에 대해 여성노동자 스스로가 비판적으로 인식하지 못하는 모습으로 그려진다는 점이다. 송기숙의 『몽기미 풍경』은 지금까지 살펴본 다른 소설들과 달리 여성노동자인 순자의 목소리로 서술된다. 그러나 순자는 여성노동자로 설정만 되어 있을 뿐, 노동자로서의 정체성에 대한 고민과 의식은 부재한 인물이다.

순자는 그 무너리처럼 이 공장 저 공장 떠돌다가 지금 다니는 장난감 공장에 자리를 잡았고, 이제는 숙련공으로 월급도 사만 원이나 받고 있다. 그사이 그러저럭 오 년이 흘러갔다. 그동안 순자는 하루도 고향을 떠올리지 않는 날이 없었다. 모두가 가난하게는 살지만 깔보는 사람도 없고 쳐다볼 사람도 없으며, 무엇에 쫓기는 절박감도 없었다. 무엇보다 몽기미의 그 포근한 인정이 그리웠다.

(『몽기미 풍경』, 122쪽)

순자의 의식 속에는 고향에 대한 그리움만 가득할 뿐 노동 혹은 노동자로서의 정체성에 대한 자각이나 고민은 보이지 않는다. 순자는 이제는 숙련공이 되어 “월급도 사만 원이나 받고” 있는 이 상황에 큰 불만도 없으며, “노랑이 사장이 얼마 전에 모처럼 선심을 써서 기숙사에 한 대 들여놓은”(『몽기미 풍경』, 118쪽) 텔레비전에도 충분히 만족하고 있다.

심지어 그녀는 “공장에 자리를 얻어 이만치라도 살아가게 되었다고 감지덕지”(『몽기미 풍경』, 134쪽)할 정도로 자신이 처한 환경에 대해 문제의식이 없는 인물이다. 적어도 텍스트에 드러난 것만으로는 순자에게서 노동자, 더 나아가 여성노동자로서의 정체성을 찾기는 어렵다. 즉, 순자 또한 가부장적 자본주의의 전형적 가치관이 투사된 인물인 것이다.

오히려 여성노동자로서의 모습을 제대로 보여주는 인물은 순자와 같은 공장에 있었던 혜선이다. 혜선은 “노동조합을 조직하려고 회사와 맞설 때 앞장을 섰다가 개 끌리듯 끌려 회사를 쫓겨난”(『몽기미 풍경』, 132쪽) 인물이다.

그가 직원들을 찾아다니며 노동조합의 필요성을 역설할 때는 순자는 자신도 모르게 주먹을 그려주었다.

‘비록 한 달에 백만 원을 준다 하더라도 그것이 회사가 단독으로 결정한 임금일 때 그것은 노예에게 주는 임금이며, 그것이 단돈 만원이 못 되더라도 노사간의 대등한 협상으로 결정된 임금이라야 그게 인간에게 주는 임금입니다.’ (...)

처음에는 얼떨떨했지만 혜선이 다른 회사 노조 결성과정을 낱알이 예를 들어 설명하자 모두 모두 고개를 끄덕이며 주먹을 쥐었다. 그렇지만 앞장섰던 그들은 개 끌리듯 쫓겨났고, 함께 나서기로 약속했던 자기는 공장 건물 뒤에 숨어서 그들이 끌려가는 꼴을 구경만 하고 있었다. (『몽기미 풍경』, 133-134쪽)

다른 노동자들에게 노동의 가치와 노동조합의 필요성을 역설하고 노동조합 결성에 앞장서다 결국 회사에서 쫓겨나게 된 혜선은 노동자로서의 정체성을 분명히 자각하고 있는 인물이다. 그러나 이러한 혜선 역시 여성성이 거세된 무성(無性)의 노동자로만 그려진다. “여자로서는 더 견딜 수 없는 수모를”(『몽기미 풍경』, 132쪽) 당하기까지 했지만 그에 대한 구체적 언급은 텍스트 상에 나타나지 않는다. 정확히 말하자면, 나타날 수 없다. 혜선의 생각과 감정, 그리고 그녀가 처한 상황은 순자의 시선

을 통해 전해지기 때문에, 순자가 함께 하지 못한 사건이나 순자로서는 충분히 이해할 수 없는 혜선의 심리에 대해서는 말할 수 없기 때문이다. 순자도 물론 혜선의 영향으로 의식이 조금씩 바뀌고 노동운동에 참여하는 모습을 보이지만, 결국 그녀는 함께하기로 했던 약속을 어기고 “공장 건물 뒤에 숨어서 그들이 끌려가는 꼴을 구경만” 했기에 혜선의 생각과 행동을 끝까지 그리고 제대로 전하지 못한다. 그리고 이런 순자의 시선 속에서 혜선은 자신과 같은 ‘여성’이기보다는 노동운동을 위해 희생한 순교자적인 모습에 가깝게 그려진다.

그들은 끌려 나가며 구경하는 공원들에게 안타깝게 고함을 질렀다. 그렇게 안타깝게 지르던 고함소리는 무슨 말이었을까? 도와달라는 애원이었을까, 배신자라는 질책이었을까? 순자는 그들의 고함소리를 멀리 들으면서, 우리는 거들어줄 힘이 없다고, 그들에게 변명하고 자신에게 변명하며 구경만 하고 있었다.

(『몽기미 풍경』, 134쪽)

이처럼, 여성노동자이긴 하나 가부장적 자본주의의 시선을 가진 순자라는 인물을 통해 서술되는 한, 혜선이 끌려 나가는 순간까지 말하고자 했던 것이 무엇이었는지, 그리고 그때의 심정이 어땠을지 독자들은 영원히 알 수 없다. 심지어 혜선은 텍스트 상에 직접 등장하지도 않는다. 혜선은 순자의 기억 속에서 잠깐 회상될 뿐이며, 순자가 혜선을 만나러 갈 것이라는 암시만 남긴 채 텍스트는 끝나기 때문에 독자는 마지막까지 혜선의 목소리를 직접 들을 수 없다.

이는 물론 앞서 언급한 것처럼 문학 텍스트에서만 의 문제는 아니다. 여성노동자에게서 여성성을 지워버리고 ‘전사’나 ‘역군’의 이미지만을 덧씌워 놓은 것은 강압적 방식으로 산업화를 추진했던 박정희 정권의 지배이데올로기에서 비롯된 것이지만, 이러한 지배담론에 저항하는 이들

역시 똑같은 형태의 폭력을 가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 문제는 한층 더 복잡한 성격을 띠게 된다. 70년대 여러 생산현장에서 조직되기 시작한 노동조합은 남성적 문화와 가치를 기반으로 형성된 탓에, 여성노동자의 권리나 이해관계는 자연스럽게 간과되거나 무시되었다. 노동 운동을 다루는 남성 지식인들에게서도 여성 중심의 작업장에서 일어난 노동 운동은 거의 분석되지 않았을 만큼 여성 노동자는 철저하게 배제되고 소외되었다.<sup>17)</sup> 오히려 여성노동자의 권리를 운운하면 노동운동을 분열시키고 세력을 약화시키는 이기적 발상이라며 비판의 대상이 되었던 것이 당시 노동운동의 부끄러운 민낯이었다.

실제로 70년대 노동현장의 상당수 여성노동자들은 『흔들리는 땅』의 남숙, 『난쏘공』의 영이, 『몽기미 풍경』의 혜선과 다르지 않았다.<sup>18)</sup> 이들은 노동자로서의 정체성도 충분히 자각하고 있었으며 자신들을 둘러싼 상황에 대한 계급적 문제의식 또한 분명하게 갖고 있었다. 특히 당시 여성노동자들의 수기를 통해 엿볼 수 있는 이들의 경험과 고민의 상당수는 노동자 일반의 문제가 아니라 ‘여성노동자’서의 차별성과 특수성을 띤 것이었다. 그러나 이런 여성노동자들의 자각과 문제의식이 문학의

17) 심지어 이런 현상은 노동계급이 진보적 변혁세력으로 급부상한 1980년대 후반에도 계속되었다. 가령 1987년 노동자 대투쟁 이후 등장한 전노협외의 경우, 여성 조직원의 비율이 상당히 높음에도 불구하고 젊은 남성 노동자 중심의 전투성과 투쟁성이 강조되었던 것은 노조 집행부가 거의 남성에 의해 독점된 상황과도 무관하지 않다. (김현미, 앞의 글, 54-55쪽)

18) 이는 같은 시기 발표된 여성노동자들의 수기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서울로 가는 길』, 『공장의 불빛』, 『빼앗긴 일터』 등은 모두 여성노동자들의 노동운동 경험이 주를 이루고 있다. 또한 70년대 노조활동에 참여했던 노동자들의 성비를 비교해보면 1976년에는 여성노동자의 구성비가 41.4%에 달하며, 증가율 또한 남성보다 더 큰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김원, 앞의 책, 371쪽) 그리고 흔한 경우는 아니었으나 여성이 노동조합 지부장으로 선출되기도 하는 등 노동자로서의 목소리를 적극적으로 내는 여성노동자들이 실제로는 많았음을 보여주는 자료들은 많다.



영역으로까지 이어지지 못했다. 문제는 이들을 보는 시선이다. 소설 속 여성노동자들에게는 공통적으로 ‘여성’이 아닌 ‘노동자’로서의 모습, 특히 노동운동을 위해 희생하고 헌신하는 순교자나 투사로서의 역할만이 부여되었고, 이 과정에서 여성으로서의 모습이나 사적 욕망은 당연한 듯이 배제되고 생략되었다. 소설의 주제는 인간으로서 최소한의 권리와 보다 나은 삶을 가리키고 있지만, 이야기를 전하는 과정에서 여성노동자들의 목소리를 거세해버림으로써 정작 그들의 삶과 경험, 그리고 그들의 권리와 요구를 배제하거나 유예시켜버리는 역설적 상황을 70년대 노동소설들이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 4. ‘남성/지식인’의 시선으로 정형화된 70년대 노동소설의 한계

1970년대, 이른바 ‘여공’, ‘공순이’ 등으로 불렸던 여성노동자들의 ‘실제’ 모습은 매우 다양했을 것이다. 어떤 이들은 가족을 부양하고 생계를 책임져야 하는 가장이었으며, 또 어떤 이들은 남진과 나훈아의 노래를 탈출구 삼아 위안을 받는가하면, 다른 한편에는 여대생을 동경하며 현모양처를 꿈꾸는 이들도 있었을 것이다.<sup>19)</sup> 이들 모두가 70년대의 여성노동자였다. 따라서 ‘여성노동자’를 하나의 이미지로 규정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러나 70년대 노동소설들에 나타난 여성노동자는 정형화된 몇몇 이미지에 제한되어 있었다. 노동자로서의 정체성이나 계급의식 등은 생략된 채 여성성만이 부각되거나, 이와 반대로 노동자 혹은 산업전사로서의 이미지만이 강조된 모습이 70년대 노동소설에서 발견되는 여

19) 1970년대 여성노동자들의 다양한 모습에 관해서는 이미 『여공 1970 그녀들의 反역사』(김원, 이매진, 2006)가 자세하게 다룬 바 있다.

성노동자들의 전부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다시 말해 ‘여성’이자 ‘노동자’로서의 문제의식이나 정체성을 가진 여성노동자 인물이 70년대 노동소설에서는 사라진 것이다.

실제로 이 시기의 여성노동자들이 직접 기록한 수기에서는 여성노동자로서만 경험할 수 있는 사건이나 감정들을 쉽게 접할 수 있다. 가령 작업장에서 만연한 성적 희롱과 폭력 행위는 여성노동자들만이 겪는 고질적인 문제 중 하나이다.

“과장은 작업시간과 상관없이 일하는 아가씨를 끌어 안으려 하고 아가씨들 몸을 아무데나 만지고 아주 보기 흉하게 장난을 한다. 그것도 한 두 번이 아니고 매일같이 아가씨들이 장난감인양 가지고 논다.”<sup>20)</sup>

“계급층의 남자의 경우엔 작업장의 처녀들을 봉급 좀 올려 준다 희롱하여 여자들의 몸에 손을 대는 경우가 정말 적지 않다고 생각한다. 눈을 떴다고 해도 눈 뜬 봉사가 되어야 하고, 귀는 들은 것도 듣지 않은 것처럼 행동해야 한다. 세상살이 살자 하니 별래 별짓…….”<sup>21)</sup>

“사내들은 우리를 바짝 움켜쥐고 밖으로 질질 끌어냈다. “어머, 세상에 이런 사람들이 다 있어.” 우리와 같이 끌려나온 사람이 외치자 그 중 한 녀석이, “그래, 이년들이 우리는 이런 사람들이다”하면서 아랫도리를 훌쩍 벗어 보이면서 드세게 설쳐대는데 완전히 기가 질려 버렸다.”<sup>22)</sup>

현실 세계에서는 이렇게 만연해 있는 노동현장에서의 성적 문제들이 70년대 노동소설에서는 거의 드러나지 않는다는 점은 분명 문제적이라 할 수 있다. 70년대 노동소설의 이러한 문제는 당시 노동현장과 노동운동 진영에 만연해 있는 인식과 무관하지 않다. 당시 노동현장과 노동운

20) 송효순, 『서울로 가는 길』, 형성사, 1982, 137-138쪽.

21) 김경숙 외, 『그러나 이제는 어제의 우리가 아니다』, 돌베개, 1986, 229쪽.

22) 석정남, 『공장의 불빛』, 일월서각, 1984, 90쪽.

동은 철저하게 남성노동자 중심으로 구성되고 운영되었다. 노동자들의 자유와 권리를 외치면서도 정작 자신들과 함께 노동하고 투쟁하는 여성 노동자들에 대해서는 차별적이고 배타적이었던 남성노동자들의 모순적 태도에 대해서는 이미 많은 논의에서 지적된 바 있다. 실제로 1970년대 노조 활동의 중심축은 여성노동자들이었지만 여성노동자들의 저항성, 전투성만이 지나치게 강조된 나머지, 노조 내부에 존재하는 여성과 남성 사이의 균열은 부차적인 요소로만 여겨졌던 것이 사실이다.<sup>23)</sup>

첫째, 그 직업이 아무리 천직이라 할지라도 결혼, 출산 등의 이유로 일생 근무 할 수 없는 시간의 단절이 있다는 것이며, 둘째는, 노동운동의 성질상 그것이 아무리 여성 근로자가 압도적으로 많은 섬유 계통의 공장일지라도 조직이라는 수월치 않은 관문을 통과하는데 여성이라는 사교의 한계는 이를 감당하기 힘들다는 것이 그 이유이며, 셋째는, 노동운동이라는 거치른 향로를 헤쳐 나가는데 투철한 사명감을 여성에게 기대하기 어렵다는 이유…….<sup>24)</sup>

위 인용문은 노조에 대한 당시의 지배적 담론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노동, 작업, 노조 활동 등은 남성의 강인함·힘·권력 등과 같은 남성성의 기호들로 채워지면서 여성노동자들은 작업장과 노조 활동에서 소외되었으며, 더 나아가 전체 노동운동사에서도 여성노동자들이 주도한 노조 활동은 ‘남성들을 무력화 시킨다’는 이유로 배제되고 희생되었다.<sup>25)</sup>

3장에서 살펴본 「흔들리는 땅」의 남숙이나 「몽기미 풍경」의 혜선과 같은 여성노동자들이 분명 실재했음에도 불구하고 소설에서 이들의 존재감은 약했으며 제3자의 시선에 투사된 형태로만 존재했던 것은 70년대 당시의 이런 실상과 무관하지 않다. 즉, 여성성만이 극대화된 ‘여성’

23) 김원, 앞의 책, 369쪽.

24) 김원, 앞의 책, 394쪽.

25) 김원, 앞의 책, 370-375쪽 참조.

노동자 혹은 산업전사·순교자로서의 무성적 존재인 여성'노동자와 같이 극단적인 하나의 속성으로만 묘사된 절름발이 형태의 여성노동자만 소설에 등장했던 것은 소설에서 시선과 목소리가 모두 '남성/지식인'에게 제한되어 있었기 때문인데, 이러한 '남성/지식인' 중심의 시선은 노동현장과 노동담론의 생간 공간뿐 아니라 사회 전반에 만연한 것이었다.

그런 점에서 보자면, 앞서 살펴본 소설들은 70년대 노동자들과 노동현장의 모습을 가장 '리얼하게' 그려낸 것일지 모른다. 그러나 현실을 완벽하게 재현하는 것은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이것은 문학 본연의 모습 또한 아니다. 문학은 당대 현실을 단지 '리얼하게' 묘사하는 것에 그칠 것이 아니라 현실의 문제나 모순을 비판하고 새로운 대안이나 이상적 가치를 모색하고 제시하는 것까지 담당해야 한다는 사실을 떠올린다면, 앞서 살펴본 70년대 노동소설들에 아쉬움이 들 수밖에 없다. 특히 왜곡되고 편중된 시선으로 규정하고 재단한 이미지로만 재현한 것은 분명 문제적이다. 더욱이 소외되고 억압된 노동자 계층을 이야기하겠다는 노동소설에서 더 약한 이들을 배제하고 희생시키는 것은 결국 그 소설들이 비판하는 폭력적 논리를 되풀이하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 80년대 초, 여성노동자들 스스로가 자신들의 이야기를 세상에 내놓기 전까지 이들의 모습이 소설에서 제대로 그려지지 못한 채 외부의 시선에 의해 굴절된 형태로만 재현되었던 것은 분명 70년대 노동문학의 한계라 할 수 있다.

70년대의 상징과도 같은 『난쏘공』과 『객지』는 여전히 노동소설을 대표하는 작품들이며, 이런 작품들을 낳았던 70년대가 노동문학, 더 나아가 민중문학의 맹아가 싹트기 시작한 시기라는 점에 대해서는 더 이상 이견이 없을 것이다. 그러나 그간의 이런 평가와 찬사에 가려져 놓치고 있던 사실은 없는가? 과연 70년대 노동소설들은 당대 모든 노동자들의 삶과 고통을 충분히 그리고 제대로 형상화했는가? 적어도 앞서 살펴본

소설들에서와 같이 여전히 주변부에 머물러 있는 존재, 타인에 의해서만 재현될 수밖에 없는 여성노동자들의 존재를 떠올린다면 70년대 노동소설에 대한 평가는 좀 더 조심스럽게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여성노동자들의 다양한 모습들 가운데 누군가의 필요와 욕망에 부합되는 일부의 이미지로만 여성노동자를 재현한 것에 대한 비판과 반성이 충분히 이루어진 다음에야 비로소 70년대를 ‘노동문학의 시대’ 혹은 “민중·민족 주체의 부상을 선도한”<sup>26)</sup> 소설의 시대라 부를 수 있을 것이다.

---

26) 김은하, 앞의 글, 250쪽.

## 참고문헌

### 1. 기본자료

- 송기숙, 『몽기미 풍경』, 최일남·송기숙 외, 『노새 두 마리 外』, 2006.  
이청준, 『별을 기르는 아이』, 『별을 보여드립니다』, 열림원, 2008.  
조세희, 『난장이가 쏘아 올린 작은 공』, 이성과 힘, 2003.  
홍성원, 『흔들리는 땅』, 홍성원·신상웅 외, 『흔들리는 땅 外』, 창비, 2006.  
황석영, 『돼지꿈』, 『삼포 가는 길』, 창작과비평사, 2000.

### 2. 논문과 단행본

- 김복순, 『산업화의 최종심급과 재현의 젠더』, 『한국현대문학연구』 27호, 2009, 407-449쪽.  
김 원, 『여공 1970 그녀들의 反 역사』, 이매진, 2006.  
김은하, 『1970년대 소설과 저항 주체의 남성성』, 『페미니즘연구』 제7권2호, 2007, 249-280쪽.  
김현미, 『한국의 근대성과 여성의 노동권』, 『한국여성학』 제16권 1호, 2000, 37-62쪽.  
\_\_\_\_\_, 『근대의 기획, 젠더화된 노동 개념』, 김영옥 엮음, 『“근대”, 여성이 가지 않은 길』, 또 하나의 문화, 2001.  
류보선, 『사랑의 정치학: 『난장이가 쏘아 올린 작은 공』을 통해서 본 조세희론』, 민족문학사연구소 현대문학분과, 『1970년대 문학연구』, 소명, 2000.  
이정옥, 『산업자본주의시대, 여성의 삶과 서사』, 『여성문학연구』, 8호, 2002, 231-260쪽.  
전혜진, 『미혼 공장 여성노동자의 경험을 통해 본 근대적 여성성 형성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3.  
하시야 히로시, 김제정 옮김, 『일본제국주의 식민지 도시를 건설하다』, 모티브북, 2005.

## Abstract

### Female Labourers as stereotyped images in Labour novels in the 70's

Kim, Kyoung-Min (Daegu University)

In the field of literary history of Korea, the 70's is evaluated as an era of popular literature and labor literature. However, in these novels written in the 70's that would talk about issues related to labor, female labourers are hardly observed. To be specific, the female labourers are observed or reproduced only through these eyes of male characters or male narrators but they seldom speak in their own voices. Presence of the female labourers who could not speak for themselves in the novels of those times is recreated basically in two ways and as for the first type of presence, the female labourers are described merely as 'women' but never as 'labourers'. Most of these appearances of the female labourers explained by the male characters get distorted as some decadent and promiscuous images or by reason that they are not capable of conducting independent, proactive thinking, the female labourers are described as these vulnerable, ignorant individuals but nothing else who should be happy to be controlled or protected by a head of a family, either a father or an older brother. In addition, in terms of another type of the female labourers in the novels in the 70's, there are these female labourers who would be described only as asexual 'labourers', and readers cannot find anything feminine about those women. In case of such female labourers, they were expected to accept sacrifices and pains with willingness as they were modified by these appetizing terms, 'industrial worker' and 'pillar of industry', and in the meantime, desires, emotions and others that they could have inside as women were easily ignored and ruled out. Add to that, unlike the male labourers, as for these problems such as sexual harassment and sexual violence that only female labourers could hardly avoid, they were never officially discussed as being left out behind these other generalized labor issues. As described so far, the female labourers in labour novels in the 70's were still surrounding characters, and it can be regarded as another type of violence committed by the intellectual/men

248 대중서사연구 제21권 2호

on purpose (out of awareness).

(Key words: Female Labourers, Labor literature, Intellectual/men, Feminine)

논문투고일 : 2015년 6월 30일

심사일 : 2015년 8월 1일

수정완료일 : 2015년 8월 10일

게재확정일 : 2015년 8월 13일